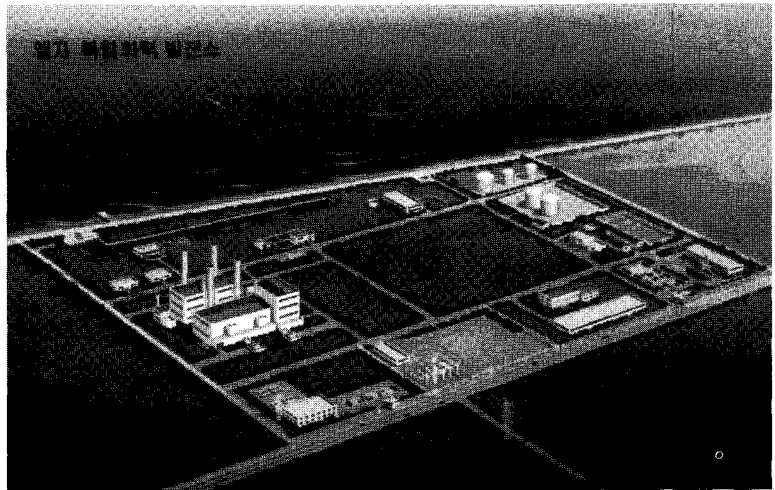


민자발전사업의 개척자 LG에너지(주)



아산 국가산업단지내에
건설될 LG 부곡 LNG
발전소 조감도

LG에너지의 설립배경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원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효율적인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전력 생산을 극대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5년 민자발전사업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발전사업은 민간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운영·소유하고(BOO : Build, Operate, Own), 생산된 전력은 전량 한국전력이 매입하여 송전·변전·배전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처음

으로 실시된 입찰에서 LNG 복합화력부문중 2001년에 제일 먼저 준공되는 제1사업자로 LG에너지를 선정하였다.

LG에너지의 사업준비 현황

LG에너지는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9일 설립되었다.

LG그룹은 이미 경제개발 초기인 1969년에 국내최초의 민자발전사업자인 호남전력주식회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민간기업의 전원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이후에도 발전설비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자재 조달등 발전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계속 수

행해 왔다.

또한 정유, 화학등 에너지 관련 Plant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일산열병합발전소, LG화학 여천공장 열병합발전소를 설계·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경험과 기술은 LG에너지가 LNG분야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LG에너지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인원 및 조직의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기술의 자립준비 등 각 분야에서 최적의 성장기반을 갖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 등 국내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도입함은 물론 민자발전사업 분야의 해외 선진기업들을 방문하여 Bench Marking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의 부곡 LNG발전소 건설계획 진행 현황

LG에너지의 1차적인 과제는 2001년에 준공기로 되어있는 LNG발전소를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공하여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이다.

LG에너지가 건설하는 발전소는 50만 kW급 LNG발전소 1기로써 충남 당진군 아산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내에 건설하게 된다.

현재 부곡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시공사인 LG건설을 통해 '95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지 및 매립공사를 진행중이며 이곳에는 LG에너지, LG전

선 등 LG 그룹계열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LG에너지는 '98년 8월 발전소 착공을 목표로 하여 모든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발전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96년 12월 28일 당진군에 접수시켜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97년 4월 3일 개최하였다.

LNG발전소는 이미 수도권 신도시에서 건설·가동중에 있어 주민들이 이들 발전소를 직접 견학토록 하고 사업설명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초기에 갖고 있던 환경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해소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LG에너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발전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본점을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로 하고, 사무소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두었다.

또한 '98년부터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마을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전사업의 필요성, 환경문제, 지역지원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LG에너지가 추진하는 민자발전 사업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LG에너지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조세의 납부를 통해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전력수급 현황과 LNG 민자발전 사업전망

LG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는 민자발전사업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LNG발전사업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해외 발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95년 12월의 장기 전력수요 예측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전력수요는 '94년 1,465억 kWh에서 2010년 3,656억 kWh로 '94년 실적 대비 2.5배 성장하여 '95~2010년 기간 중 연평균 5.9% 증가될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의 2~3배 수준이며 대만과 비슷한 수요 증가 추세이다.

이와 같은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정부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5,700만 kW의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총 105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되 이중 40기의 LNG 발전소를 건설, 1,744만 kW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이들 LNG발전소에 대하여는 최대한 민자발전 사업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LG에너지는 이러한 LNG발전소 건설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역량을 강화, 확대시킬 계획이다.

LG에너지의 해외시장 진출 계획

LG에너지는 국내에서의 민자

발전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해외의 민자발전사업을 포함한 전원 개발사업에도 진출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자발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전력수요가 16~18%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4~10GW를 민자발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2007년까지 추가로 143GW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중 약 93GW는 민자발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등도 민자발전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LG에너지는 우선 이들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의 전원개발사업에 진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개척은 LG에너지, LG건설, LG엔지니어링, LG상사등 해외 전원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96년 10월 9일 법인설립을 마치고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그룹사간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기술 경쟁력 보완 및 신뢰도 향상의 일환으로 주기기업체인 한국중공업, ABB, GE, SIEMENS와도 시장상황에 따라 제휴를 고려할 것이다.

민자발전사업의 지원 방안



정부는 전원개발 사업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민자발전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민자발전사업자가 조속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민자발전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중 제2종으로 분류되어 제도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초기의 투자규모가 크고 이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감안, 제1종 시설로 분류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한전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지원비를 건설공사비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우도 한전과 같이 원활히 발전소를 건설, 운영할

'97년 4월 3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이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 기관의 이해 및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 관계기관의 이해와 지원이 있어야 민자발전사업자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LG에너지는 제1사업자로서 새로운 사안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LG에너지의 사업추진은 민자발전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척자적 정신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21세기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 LG에너지의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